

## 사실과 고증(考證)

이 만 열  
(숙명여대 교수)

### I

한국의 기독교사를 연구하는 전통은 어언 60여 년 이상의 연륜을 쌓게 되었다. 19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들 교단의 선교의 역사를 정리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한국인에 의한 기독교사의 연구는 192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화되었다. 선천 신성 학교를 졸업한 백낙준이 미국에 건너가 프린스턴을 거쳐 예일 대학 신학부에서 당시 유명한 교회사 교수였던 라투레트(K. S. Latourette)의 지도 아래 1927년 “한국 개신교사(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1832-1910)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연구는 1929년에 한국에서 영문으로 간행되었는데, 당시 개신교 선교가 불과 40여 년밖에 안된 형편에서 볼 때, 그러한 짧은 기간을 박사 학위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나, 당시 교통 시설과 복사 시설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있는 한국 관계 선교 자료를 거의 완벽하게 수집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는 의미에서, 백박사의 업적은 놀랄 만한 것이었다. 그 연구가 이루어진 지 60년이 지난 오

늘에도 이 시기에 대한 연구로서 그의 업적을 능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그 뒤에 진행된 한국 기독교사 연구의 수준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인에 의한 한국 기독교사 연구가 6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그 연구 자세에 우려, 반성할 요소들이 많다. 우선 아직도 특정인의 기억과 전설에 의존하는 연구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백 박사 이전의 전근대적 방법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교회사도 하나의 학문 영역에 속한 것이라면, 역사학이 취하고 있는 방법론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것은 철저히 사료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과 그 사료는 엄정한 사료 비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강의와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자세는 하루 속히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근간에 한국 기독교사 연구가 다소 활발하게 진행되는 느낌을 갖는다. 그것은 한국 기독교 100주년의 분위기와 함께 역사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기독교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사료들이 간행되어 그 연구열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

들이 간행한 The Korean Mission Field (1905-1941)와 한국 교회의 언론 매개체로서 장·감 합동으로 간행한 기독교신보(基督新報, 1915-1937)의 복간은 그 가장 뚜렷한 것이며, 그 밖에도 많은 사료들이 요 5-6년간에 복간되었던 것이다.

기독교사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시 우려할 사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상당히 학문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학자들에게까지 나타나는 현상으로, 남의 업적을 도용(盜用)하고 있는 점이다. 학문이란 하루 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문제와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견해를 달리하기도 하며 동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선학(先學)과 동료들의 연구에 자극과 도움을 받으며 때로는 비판과 공격을 곁들이는 가운데 학문은 발전되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미 천착한 연구 업적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 학문하는 세계의 불문율이 있다. 남의 학설을 지지·반대하기 위해서는 그 전거를 분명히 해야 하며 비슷한 견해를 나타낼 때나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할 경우에도 출처를 분명히 소개해야 한다. 그것은 학문하는 최소한의 양심이다.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존의 타인의 연구를 자신의 것인 양 소개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소행이요, 더 심각하게는 학문 세계에서

에서의 도둑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사 연구의 경우, 이런 유(類)의 장난들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정말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원사료(原史料) 인용에 나타난 같은 유(類)의 문제점이다. 원사료가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에 산재해 있을 경우, 그것을 직접 연구에 이용하는 것은 실제로 대단히 어렵다. 이것은 십분 이해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연구자들의 경우,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한 원사료를 직접 본듯이 자신의 연구에 써 놓고 있다. 심지어는 선학이 인용한 자료와 그 전거를 그대로 써 놓고 자신의 현학성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이때 백 낙준 박사의 앞의 연구는 많은 원사료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후학들에 의해 가장 많이 도용당했고 피해를 입었다.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원사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 선학의 그것을 이용할 경우, 원사료와 그 전거를 쓰고 그 출처로서 선학의 연구 업적을 대면 된다. 이것은 후학의 학문적 성실성을 깎는 것이 아니라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적 풍토에는 그 점이 잘 통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신학도들의 학습 훈련 과정에서 이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세째는, 선학들의 연구 업적을 맹신하여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이다. 그 결과 한국 기독교사의 몇몇 부분이 상당히 왜곡 인식되어 있다.

종래 선학들의 학적인 권위 때문에, 후학들이 좀처럼 그 왜곡 부분을 거론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선학들의 주장이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전설에 의한 서술이었는데도 그것을 비판하고 그 오류를 바로잡는 데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사료들이 복간됐고, 웬만한 외국 자료도 접근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자료와 엄밀한 고증에 의하여 왜곡된 사실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점을 의식하면서, 이 글은 특히 세째 번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기독교사 초기의 연구 중 선학들에 의해 잘못 제창되어 지금까지 학계에 통설처럼 간주되어 오는 몇몇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 II

앞에서 말한 대로 백 박사의 업적은 그가 겪었던 것과 같은 사료 수집의 경험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필자는 그가 밟았던 몇몇 도서관과 사료 보관소를 다니며 자료를 수집해 본 후에야 그 책의 진가를 알아 보게 되었다. 당시 그는 오늘날의 발달된 복사기를 이용하지 못했고 자료를 일일이 읽고 카드에 기록하여 연구에 이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자료를 옮겨 쓰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의 연구에는 몇 개의 문제점이 보인다. 다음에 그

의 「한국 개신교사」(1973)에 나타난 두 가지 문제점을 먼저 거론해 본다.

먼저 미국 감리회의 한국 선교에 공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존 F. 가우처(John F. Goucher)의 당시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서술이다. 가우처는 1883년 9월 민 영익 일행이 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기차 안에서 일행을 만나 한국 사정을 알게 되었고, 뉴욕의 선교 본부와 일본의 선교사 메클레이 목사 등을 움직여 한국 선교의 문을 여는 데에 공헌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 백 박사는 가우처를 두고 당시 “발티모어의 가우처 대학 총장으로 있는”(p. 81) 분이라고 썼고, 그 뒤에 한국 기독교사 서술의 대부분도 이를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가우처가 민 영익을 만났던 1883년에는 가우처 대학이 설립되지 않았었다. 가우처 대학은 5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1888년에 「발티모어 여자 대학」으로 출발, 그 학장에 가우처가 취임하였고, 20여년 봉직 후 1908년에 가우처가 은퇴할 때에 이사회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가우처 대학이라 이름을 고쳐 부르게 했던 것이다.

다음, 우리 나라에 미국계 복음 선교사인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한국에 도착한 일시에 관한 문제이다. 백 박사는 그의 책(pp. 118, 119)에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에 인천 항구”에 도착한 것으로 서술해 놓았다. 이후 대부분의 기술

이 이를 답습하여 이제 “부활절 아침”에 도착했다는 것은 상식처럼 되어 있다. 필자도 그렇게 쓴 적이 있다.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복음 선교사가 도래했다는 것은 부활절이 갖는 이미지와 관련시켜 “아침”이 제격이었고, 따라서 많은 목회자들이 부활 주일 설교에 “부활절 아침”에 복음 선교사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던 것이다. 거기에다 이들의 도착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예들이 내한, 그들의 조상의 한국 도착을 재연하였는데, 그때 백박사의 이 서술에 근거하여 아침 9시에 그의 후손 한 사람이 물에 오르는 광경을 연출하였다. 도착 일시에 관한 문제는 앞서의 가우처의 지위 문제와는 달리 한국에서 각종 파문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던 셈이다.

그러나 4월 5일 제물포에 도착했던 아펜젤러가 그 나흘 후인 4월 9일에 본국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는, 그 부처가 일본에서 출발하여 부산을 거쳐 제물포에 도착한 경과가 자세히 적혀 있다. 그들은 이 날(부활 주일) 정오에 한강 입구에 도착하였고 오후 3시에 닻을 내렸다고 보고하고 있다. 거기서 전마선을 타고 1시간 가량을 경과한 후에 육지에 내렸다고 하니 아마도 5시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로써 “부활절 아침” 도착설은, 아펜젤러가 쓴 정확한 자료에 의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진 셈이다. 따라서 목회

자들이 부활절 “아침”과 한국의 복음의 시작과를 연결시켰던 설교 또한 무지에서 온 억설이 되고 말았다. 설교자들에게는 설교의 소재가 허물어져서 안 됐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그 진실이 보다 큰 힘을 갖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아펜젤러가 그 보고서 끝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을 위한 다음의 기도는 설교자들이 꼭 기억하고 설교에 인용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다. 이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최근 교회를 비롯한 한국 기독교의 여러 기관들이 그들의 설립 연대를 공공연히 올리는 경향들이 있다. 이 점과 관련, 「배재 80년사」(p. 10)를 보면, 배재학당이라는 교명이 1886(고종 23)년 6월 8일에 고종으로부터 하사된 것처럼 적어 놓았다. 그러나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구전에 의한 것이거나, 그 전거가 애매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당시 선교사들의 성향으로 보아 국왕으로부터 교명을 하사 받은 사건 같으면 그들이 대단히 중요시 했을 것이고, 이를 본국 선교부에도 보고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자료를 추적해 보니, 교명을 하사

받았다는 것은 1887년도 미 감리회 연례 보고서에 처음 밝혀져 있었고, 1887년 2월 21일(월)자 아펜젤러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오늘 우리 선교부의 학교 이름을 국왕으로부터 하사 받았는데, 외무아문 독관을 통해 내게 전달되었다. 그것은 배재학당 혹은 ‘Hall for Rearing Useful Men’이다……. 오늘 외무아문의 서기 요, 통역관인 김씨가 커다란 한자로 쓰인 학교 이름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정부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한국인들 앞에서의 설 자리를 얻은 것이 된다. 비록 국립 학교는 아니지만, 이제 사설 학교가 아닌 공립 학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추적하면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한국 기독교는 무엇보다 문헌에 의한 고증을 보다 중요시하는 풍토를 가꿔가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전설과 기억에 의한 역사 연구의 풍토가 지양, 시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Ⅲ

한국 교회에는 권위있는 분들에 의해 조성된 학설이 후학들의 학문 연구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 학설이 어느 기관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어서 모두들 그 학설을 신봉하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 한 예를 한국 교회의 장로직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새문안 교회 창립 때에 창립된 두 사람의 장로와 관련하여 살펴보자.

여러 자료들은, 1887년 9월 23일 새문안 교회가 14 명의 교인에 의하여 창립되었고, 그 날 두 명의 장로가 피택되어 그다음 주일(10월 2일)에 창립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밝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장로의 이름이 권위있는 학자에 의해 그럴 듯하게 제기된 것은 김 양선 목사가 「한국의 성서 번역사」(성서 한국 제2권 3호 1956년 7월호 pp. 22-23)을 연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 데서부터이다.

“1887년 9월 30일 북장로교 선교부는 한국 교회의 초석을 놓은 원래의 귀빈 로스 목사를 주빈으로 하여 한국 장로 교회의 최초의 당회를 조직하였다. 이날 밤 세례 교인 14 명이 모여 장로 두 사람을 선정하였는데, 그들은 곧 서 상륜, 백 홍준 양인이었다.”

그 뒤 한 태동 박사도 「새문안 교회 70년사」를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로스가 스코틀랜드 선교 본부에 보낸 보고서와 언더우드 박사가 미국 북

장로교 선교부에 보낸 보고서 중에는 백 홍준, 서 상륜 두 분을 장로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선교지에 있어서 처음 선택되는 장로이었으므로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는 장로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선교 본부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어느 보고서에도 두 장로로서 백 홍준과 서 상륜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김 양선, 한 태동 두 분의 주장은 민 경배, 김 광수 등 많은 교회 사가들에게 그대로 답습되었고, 한국 기독교사에 관심 가진 대부분의 사가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학계의 정설처럼 되어버렸다.

서 상륜과 백 홍준은 만주에 선교사로 왔던 로스(John Ross)와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경 번역에 참여하였으며, 번역된 성경을 한국의 의주 지방과 서울 등지에 보급하는 권서(colporteur)로서 활약한, 한국 초기 기독교사에 서 잊을 수 없는 분들이다. 백 홍준은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 수세인으로 본국에 돌아와 전도인으로 활약하였고, 그것이 이유가 된 듯, 평안감사의 핍박을 받아 2년간 투옥된 적도 있다. 서 상륜은 5번째 수세인으로, 1883년 초부터는 서울에서 전도하여 많은 개종자를 내었고, 그 개종자를 중심으로 새문안 교회를 창립할 만한 토대를 마련했다. 백 홍준, 서 상륜 두 분의 한국 초대 교회에

서의 위치가 이렇게 우뚝 섰던 만큼, 새문안 교회 창립 당시 창립된 장로를 백 홍준, 서 상륜 두 분밖에는 달리 지목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문안 교회의 창립과 두 분의 장로 장립을 써 놓은 몇몇 자료에는 “이 두 사람(장로)은 봉천에서 갔던 자의 사촌들로서 그들은 6년간이나 신자로 지내 온 자들”이라고 밝혀 놓았다. 그리고 여기에 밝혀 놓은, 봉천에서 서울에 왔던 사람은 서 상륜이 아니고, 임오군란에 관련되어 압록강 연안으로 유배되었다가 로스로부터 세례받고 서울에 전도인으로 파견된 젊은이를 가리키고 있음도 밝혀지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기독교사 연구」 19호(1988. 4월)에 필자가 쓴 〈서 상륜의 행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와 이 덕주가 쓴 〈백 홍준〉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다만 이때 장립 받은 장로들은 1892년 말에(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도 마펫(Samuel A. Moffett) 선교사의 자료에 나타나 있다. 1892년 말이면 서 상륜과 백 홍준은 미국 북장로교로부터 유급 전도인으로 활약하고 있을 때였다. 이로써 서·백 두 분이 초대 새문안 교회의 장로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학자 혹은 권위에 의해 잘못 인식되어 있는 한국 기독교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진실한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료와 고증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끝맺는다.